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조사·수사

정부, 관련 법률안 등 13건 공포... '친권자 징계권 규정 삭제' 민법 개정안... 靑 "신속 보호 기대"

정부는 19일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받은 즉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법률안 13건을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다.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부대변인은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임 부대변인은 "그동안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복합용도개발에 한계가 있었다"며 "역세권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동시에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책이 잘 마련되도록 관계부처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설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공품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자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훈련 목적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뉴시스

전북도, 정보공개종합평가 '우수'

587개 평가기관서 충남·충북 등과 함께 우수기관 선정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2020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전체 평가대상 587개 기관에서 충남도, 충북도 등과 함께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 2019년도 상반기 정보공개 종합평가 '보통' 등급에서 한 단계 향상됐다. 이번 평가는 2019년과 2020년 2개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를 평가해 기관 유형별 평가순위와 점수를 기준으로 총 4개 등급을 부여했다.

도는 사전정보 공표 등록 건수, 정보목록 공개율, 원문공개율의 총실적,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객 정보 수요 분석, 설문조사, 비공개 세부기준 확립 등을 통해 국민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사전정보 공개 제도를 운영하는 등 고객수요 분석에 적극 대응해 높은 고객 만족도를 이뤘다.

하태욱 전북도 총무과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투명하고 신뢰 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도내 동물보호센터 관리개선 추진

유기동물사업비 전년 대비 2배 ↑

전북도가 각 시·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도내 23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 수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유기동물의 포획, 치료,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작년 7.2억원에서 14.4억원으로 두 배 증액해 단가를 현실화한다.

또한, 동물단체와 협조체계 구축으로 새 주인을 찾아주는 입양 활동과 지역 축제 행사시 동물 관련 부스를 설치하는(바자회) 등으로 적극적인 입양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과밀수용으로 인한 위생수준 하락,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수의사, 명예감시원이 협의회 인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단체 회원(2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보호센터 관리수준 향상과 입양 활동에 기여토록 했다.

보호소 시설개선을 위해 올해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2개소 설치(2억원)를 지원하고, 2025년까지 균형을 맞춘 운영에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 축산과 관계자는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인식표 동물등록 방식이 폐지되고, 동물학대 및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강화,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맹견소유자는 기한 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기자



'전주역에 붙은 설 승차권 예매 안내문'

2021년도 설 승차권 비대면 판매가 시작된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역 대합실 앞에 승차권 예매와 관련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북도, 재난안전·교육문화 지원사업 공모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인... 2월 8일까지 접수

전북도가 2021년도 '재난안전 및 교육문화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2월 8일까지 20일간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재난안전 활동 및 안전교육 사업은 도민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활동 훈련' 분야와 생활 속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생활안전 교육문화'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공모자격은 도내 재난안전 및 안전교육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2021년도 재난안전 및 교육문화 지원사업은 총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의 독창성 및 지원목표의 부합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적절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추진 계획,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해 2월 현지 실사를 거쳐 3월 중 전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하게 되며,

최종 결과는 전북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2월 8일까지 전북도 안전정책관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관련 자료는 전북도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안전 및 교육문화 지원사업으로 안전한 전북구현을 위한 민간단체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재난안전 공익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평가

진안·무주·장수군·수자원·농어촌공사 등 총 5개 기관 대상

전북도가 진안군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평가를 실시한다.

수질자율관리 평가는 2005년 2월 전북도와 진안군, 주민, 수자원공사 간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고 격년제(매 2년마다)로 실시해 왔으며, 올해가 8번째다.

평가 대상은 진안·무주·장수군과 유관기관인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총 5개 기관이다.

이번에는 2019~2020년 2년 동안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집·비점오염 저감정책, 용담호 호소관리 및 지역주민 수질 자율관리 확산 운동 등 5개 분야 2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도는 농업비점 오염부하량 감소를 위해 토지계, 축산계 등 비점오염원 저감에 더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 각 기관과 전문가의 견수령을 통해 상반기 중 평가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수질·행정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8월부터 10월까지 1차 서면, 2차 현장 확인을 통해 평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수질자율관리 평가를 통해 등급이 '보통'일 경우 수질개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미흡'으로 나온 경우 현 수질자율관리 체계를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용담호는 1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총 7번의 수질자율관리 평가에서 모두 '정상'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허건 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의 70%인 130만명이 마시는 식수원인 용담호 수질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년 단위 평가를 통해 수질관리 정책들을 점검, 진단해 필요할 경우 수질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정부, 지자체 한파 대응 위해 20억원 특교세 긴급지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한파 대책 추진을 위해 총 2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겨울 한파가 당분간 지속될 것인만큼 현장에 따른 조치다.

한파 대응을 위해 특교세를 지원한 건 올겨울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

서 지난해 말 지자체의 생활밀착형 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지원을 위해 30억원을 배분한 바 있다.

이번 특교세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쪽방상담소 등 노숙인·쪽방주민 관련 시설과 한파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방한물품을 구입하는 데 주로 쓰인다. /뉴시스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우석대 원광대 **상담**
원광대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스피치·긴장해소·리더쉽·웃음코칭

스피치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김양욱 교수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도서관 편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
- 한국스피치·음성학회 전북회장
- 전북대학교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사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새롭고 멋진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주, 야간)	익산, 논산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	군산,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아)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